

2009년 7월 8일

전화 : 042-530-9250 Fax : 042-530-9247

발행 : 대전도시공사 노동조합 편집 : 홍보국

# 열린마음

## 공공기관 선진화방향에 따른 최근 정세와 대응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 선진화”를 명분으로 구조조정 방안을 연속으로 발표하고 있다. 지난 해 공기업 민영화 계획이 국민들의 저항으로 추진되지 못하자, 대신 강도 높은 공공기관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6차까지 발표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은 계속 추가 발표 될 예정이다. 동폐합기관, 일부 기타공공기관 등 6차 선진화 방안까지 포함시키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 7차 방안으로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 모든 공공기관에 예외없이 적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우리 현장을 어떻게 바꾸나?

**[정원감축과 구조조정]** 공공노조의 대부분 공공기관 사업장도 정원의 15% 수준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정부는 이번에 정원을 목표치에 따라 일괄로 조정하고, 현원은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초과현원에 대한 예산을 직접 통제하여 구조조정을 압박한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되면 만성적인 인력부족, 업무과중을 겪고 있는 현장은 인원 충원이 앞으로 불가능하다. 더구나, 정원을 모두 줄여놓은 상태에서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퇴출제 등을 통해 조기 퇴직 시키려는 압력이 커진다.

**[비정규직 해고, 외주화]** 경상경비도 5%이상 절감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부터 해고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부가 청년인턴을 예산배정도 없이 무조건 채용하라고 하는 마당이라, 이미 기존의 비정규직 직원을 해고하고 업무상 필요도 적은 청년인턴을 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평가제도와 퇴출시스템]** 전산화·자동화된 업무프로세스 도입(ERP 등 전자적 통제)과 성과부진자 퇴출시스템이 도입된다는 점을 주목하자. 이를 통해 정원감축 후 남은 초과현원에 대한 구조조정은 물론, 지속적인 노동강도 강화, 현장통제 강화가 진행될 것이다.

**[임금체계 개편]** 대졸초임삭감, 성과급, 연봉제, 임금피크제를 전 기관에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표준모델”로 도입을 전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 없는 임금삭감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공시 내용 확대]** 공공기관의 정기 통합공시(연4회) 내용을 크게 확대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여론공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복리후생관련 사항은 학자금, 주택자금지원, 사내복지기금 등 세부적으로 공개하도록 했고 임금정보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노동조합 현황은 단체협약 등을 모두 공개하도록 해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 경영평가 지적사항, 감사원 지적사항도 알리오에 모두 공개하고 허위공시를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여론의 통제를 강화한다는 의미다.

### 우리의 대응은?

정부에서 공기업 선진화를 부르짖지만 선진국들도 지금 신 뉴딜정책이니 워니해서 고용을 유지하고 경제시스템 재건의 발판을 만들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생각하지도 못할 기업지원책과 공공적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있다. 모두 대규모 실업사태와 소비기반 붕괴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공기업영역에서부터 대대적인 강원을 추진하다니, 이러한 것이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인지 노동자들은 정신이 아찔하기만 하다.

이런 방안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정부는 먼저 실업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강원된 사람들이 전업을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정부는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먼저 말해야 한다. 과거 KT의 114업무 민영화 대책에서 시도된 대로 민간으로 아웃소싱된 업무와 인력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일정기간 지원을 보장한다든지 하는 것도 극히 일부분의 대책이지만 하나의 참고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남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퇴직하는 사람들 명퇴금 보태준다는 식으로는 대책이라 말할 수 없다.

아직 공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완전이 마무리 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조합원 모두는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업무를 처리해 나갈 때 우리 모두가 상생하는 희망이 보일 것이며, 공사 경영자들도 정부가 몰아치기식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공사인의 방패, 대변인의 입장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간다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리라 생각한다.



▶ 2008 노사협의회 ◀



▶ 2008 임시대의원회 ◀



▶ 2008 임금교섭 ◀



▶ 전국도시개발공사 축구대회 우승 ◀



# 이윤혁 위원장 한마디



대전 도시공사 노동조합 노보가 동지들께 첫선을 보입니다. 어떤 일인지 시작은 미약하고 미숙하지만 이 것이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출발이 아닐까 합니다. 이 첫걸음이 앞으로 규칙적이고 훌륭한 우리들 모두의 노보로 변화해가기 위해서는 동지들 모두의 관심과 정열이라는 거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시 한번 노보의 발간을 동지들과 함께 축하합니다.

세월에 빠름을 논하는 많은 말들과 글이 있지만 암울했던 시기,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동지들 모두의 고통을 동반하며 출발했던 우리 모두의 조합이 벌써 창립 7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1대부터 현 4대까지 참으로 어려웠던 많은 상황들을 헤쳐 나오며 오늘까지 다다를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려웠던 시기에 동지들 모두가 어떠한 것에도 육이지 않고 단결과 투쟁이라는 두 단어를 몸으로 보여 주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 힘이야말로 노동조합을 하나로 묶어내고 모든 가치에 앞서는 노동조합을 만들어 가는 틀이 아닐까 하며 노동조합의 끝 날까지 우리가 가져가야 할 우리들 모두의 최상가치일 것입니다.

### 동지들!!

우리는 타 노동조합과 달리 참으로 많은 직렬과 근무형태 노동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은 우리에게 많은 갈등과 부당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미래는 더더욱 많은 요구들을 우리에게 강요할 것입니다. 힘이 드는 것은 동지들 모두가 알고 있는 답이지만 그 것은 우리 모두에게 서로의 양보와 조정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희생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동지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던 우리들이기에 잠시 멈추더라도 내 주위와 내가 달려와서 서있는 지금의 위치를 만들어준 과거를 한번쯤 보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시대를 살고 있는 주위의 노동자들과 내가 걸어왔던 과거의 길에서 함께 어깨 걸고 동행했던 동지들을 한번쯤 보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부탁을 드리는 저 또한 다른 노동자들과 그리고 함께 어깨 걸고 힘겹게 오늘에 도달한 동지들을, 그들과 같이 했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위에 말들은 제자신이 저에게 더욱 강하게 요구하는 속제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돌아봄 속에서 그들에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상처와 고통을 준적은 없었는지, 그들의 아픔을 모른척하지는 않았는지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빌어 이러한 기회를 다함께 가져보길 부탁드립니다.

이 정권하에서 우리들 모두는 살얼음위에 서 있습니다. 아픔은 전체가 느끼는 아픔이나 한명, 두명이 느끼는 아픔이나 똑같습니다. 몸이 죽어 아픈 것은 아닙니다. 손가락이 잘리고 발가락이 잘려도 아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185동지들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강히 말 드립니다. 어떠한 경우가 우리들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우리 같이 할 것입니다.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을 것입니다. 절대 조합 안에서의 이법법은 없음을 동지들 모두가 가슴속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닥쳐올 어떠한 상황에서든 저는 동지들이 맡겨준 임무를 명받아 최선두에서 전선을 맞이할 것입니다. 동지들의 연대를 믿으며 반드시 승리하는 그 날까지 동지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노보의 발간을 동지들과 축하하고 동지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 노동계 소식

### 민주노총 '비정규법 위반 사업장' 집단소송 돌입키로

민주노총은 7월1일부터 적용된 비정규법 회피 목적으로 진행된 계약 해지와 관련해, '비정규직법 위반 사업장 집단소송'에 돌입키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각 산업별-지역별 계약해지 및 정규직화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돌입키로 하는 한편, 법률원을 통한 법률검토 및 소송준비 작업에도 즉각 착수키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2일 16차 중앙집행위원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비정규법 대응사업을 결정했습니다.



집단소송은 △반복경신 비정규직의 경우 상시고용 노동자로 봐야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계약해지 된 점 △임법취지에 반해 2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정규직화를 회피하고 해당 업무에 다른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비정규직법에 따라 2년이 되는 시점에 정규직화 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 법 회피를 위해 계약해지를 통해 신의칙을 위반한 점 등을 내용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가맹산하조직에서 발생한 계약해지 사업장과 신고센터를 통해 모아진 대규모 소송인단을 구성하고, 법률검토가 완료되는 즉시 곧바로 집단소송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밖에도 오늘(7월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계약해지 된 비정규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규탄대회를 개최키로 했습니다. 이 대회에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 회피를 목적으로 진행된 부당 계약해지를 규탄하고, 임법취지에 맞는 정규직화 실시를 강력히 촉구할 계획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계약해지 비정규 사업장을 묶어 민주노총 차원의 실천사업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키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아울러 비정규직법 회피를 위한 부당하고 고발센터를 전국 16개 시도 지역본부에 설치키로 했습니다. 고발센터는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노동자 권리 찾기 상담센터(1577-2260)'와 연계해 운영키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또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야4당과 한국노총에 '비정규직 계약해지 상황조사단' 구성을 제안키로 했으며, 7월 둘째주까지 '이명박 정부 비정규직법 대응비판 정책보고서'를 발간키로 했습니다. 또 국회 입법대응 사업으로 기간제법 회피 방지를 위한 법-제도 보완책의 하나로 '해고금지 조항' 명문화를 입법 요구키로 했으며, 만에 하나 시행유예를 담은 비정규약법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를 대비해 '사용사유 제한' 내용을 담은 대체입법안 제출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밖에도 비정규직법 본회의 상정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키로 한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하고, 해당 조직별 준비상태를 점검한 뒤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재차 결의했습니다.

[민주노총 보도자료 중에서]



# 주말 추천 여행

## 해돋이와 설경이 유명한 [ 대둔산 ] 여름에 찾아가보자!!!

### 봉우리 마다 솟아난 기이한 절벽과 기암괴석!!

충청남도의 대둔산도립공원과 전라북도의 대둔산도립공원으로 나뉜다. 먼저 충청남도 대둔산도립공원의 면적은 24.54km<sup>2</sup>이다. 대전광역시 남쪽 약 50km 지점에 위치하며, 1980년 5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동쪽에 오대산(569m), 서쪽에 월성봉(月城峰:649m)이 있으며, 남쪽은 전라북도 쪽의 대둔산도립공원과 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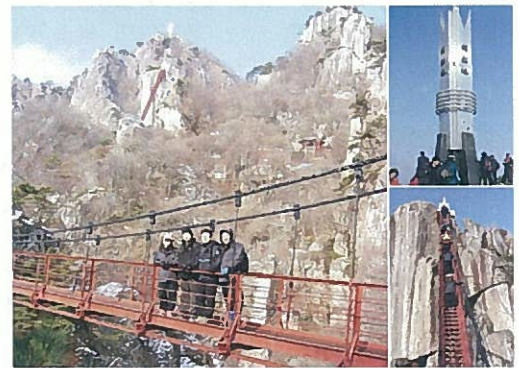
전라북도 대둔산도립공원의 면적은 38.1km<sup>2</sup>이다. 전주시 북동쪽 약 55km 지점에 위치하며, 1977년 3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동쪽에는 오대산, 북서쪽에는 월성봉, 남쪽에는 천등산(天燈山:707m)이 솟아 있으며, 북쪽은 충청남도 대둔산도립공원과 접한다. 남쪽으로는 금강의 자유인 장선천(長仙川) 상류가 협곡을 이루면서 흐른다. 대둔산은 노령산맥 북부에 속하는 잔구 가운데 하나로, 침식된 화강암 암반이 드러나 봉우리마다 절벽과 기암괴석을 이루는데, 특히 정상의 임금바위와 입석대(立石臺)를 잇는 길이 81m, 너비 1m의 금강구름다리는 빼놓을 수 없는 명소이다. 대둔산 낙조대(落照臺)에서 맞는 아침 해돋이와 낙조 또한 유명하다.

그 밖에 이치전적비(梨峙戰蹟地:전북기념물 26) 등의 문화유적과 장군약수터·행정저수지 등의 볼거리가 있다. 사찰로는 남서쪽 협곡에 안심사(安心寺)와 그 말사인 약사(藥寺), 그리고 동쪽의 태고사가 있다. 안심사는 운주면 장선리 북동쪽 5km 지점에 있는데, 6·25전쟁 때 불에 탔으나 사적비(전북유형문화재 110), 석종(石鐘) 계단을 비롯하여 부도 및 부도전(전북유형문화재 109) 등이 남아 있다.

등산로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고, 산장·케이블카 등이 설치되어 있어 오르기 편하다. 이번 주말에 대둔산의 절경을 한번 즐겨보자!!!



◎ 대둔산 전경 ◎



◎ 대둔산 구름다리등 ◎

## 좋은글! 릴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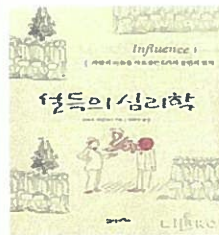


### 선암사에서

### 최영비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 더군  
늘고 두 허다 불뜸없이 낚한번 생각 할 틈없이  
아주 잠깐이 더군  
그게가 허음배속에 되어 날래 허렴  
있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네  
별리서 웃는 그대여 산 넘어가는 그대여  
꽃이 지는 건 쉬워도 있는 건 한참이 더군  
영영 한참이 더군

## 독서! 릴레이



미국의 심리학자 치알디니의 책 「설득의 심리학」 개정판 2001년이다. 남을 설득하는데 효과적인 심리학적 법칙 상호성의 법칙, 일관성의 법칙, 사회적 증거의 법칙, 호감의 법칙, 권위의 법칙, 희귀성의 법칙 6가지에 대해 여러 실험결과 및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 책이다.

최상의 기술은 심리학적 기술이 아닌 진심..

왜 충동구매를 하게 되는지, 사이버 종교의 광신성, 강도 열쌍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분석의 일부분을 제공하는 책이어서 쉽게 읽고, 자신의 일상생활을 짚어보면서 읽을 수 있다는 면에서 유익하다.

이 책의 그간 리뷰를 보면 남에게 권하지 않고 혼자만 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흥미롭다. 어쩌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 이 책은 일상에서 빠지기 쉬운 환경 때로는 소소하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함정에 걸리지 않고 건전하고 주관있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바보처럼 눈뜨고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뿐이다. 사기꾼에게 속지 않도록 주의하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매끄럽게 풀어나가는 기술, 때로는 심리전을 동원한 기술이 유용할 때가 있다. 그러나 이는 사람 관계가 진정성을, 즉 진심을 기초로 한 위에서 있다는 가정 하에서 그런 것이다.



**맛 집 소개**

**건강 상 식**

간재미 회무침으로 유명한  
서해안의 명소 오천항의 **[소영식당]**

간재미는 서해안 중남부 지역에서 잡히는 가오리과의 심해어로 충청권에선 "강개미", 또는 "깡개미"라 불리기도 하는 이 생선의 모양은 홍어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무게가 10kg이상이나 나가기도 하는 홍어에 비해 무게가 기껏해야 1kg밖에 나가지 않는 삼각형의 뾰족한 주둥이를 갖고 있고 뒤집어 보면 입을 헤~벌리고 웃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웃음이 터져 나올 만큼 재밌는 모습을 지니고 있다. 가격은 홍어에 비해 많이 싼 편이나 맛은 이에 못지않아 특히 회무침으로 먹으면 그 오돌거리며 씹히는 맛이 가히 일품인 생선이다. 물론 회무침, 찜, 회, 탕 등 먹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이 중 회무침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서해안의 명소가 있으니 바로 작은 오천항의 소영식당이다.



오천항의 명소인 소영식당은 본래 자연산 회만을 취급하는 집으로 우럭, 광어 등의 회를 주문하면 이 집의 별미인 간재미회무침을 인심 좋게 내어주는 집인데, 이 외에도 각종 해산물을 푸짐하게 내어주는 집으로 유명해 인근엔 이 때문에 찾아주는 이들이 많을 정도이며, 일부러 먼 곳에서 찾아주는 이들이 많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집이기도 하다.

주소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700-72번지  
전화 : 041-932-2989, 933-2990

여름이면 찾아오는 불청객 **[식중독]**

현대에는 난방시설도 잘되어 있고 지구의 온난화의 영향인지 사계절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결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으니 그건 바로 [식중독]이 아닌가 한다. 여름이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식중독]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조합원들은 식중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보자. 평소에도 조심해야하지만 장마철에는 더욱더 각별하게 건강관리와 사고예방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그럼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자. 먼저 가정에서 실천할 예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로 "냉장고"는 "안전고"라를 생각을 버리고 유통기한 및 상태를 꼭 확인하고 먹도록 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자. 또한 싱크대, 식기 건조대, 가스레인지는 세균이 가장 빠르게 번식 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도록 하자. 또 칼, 도마, 행주 등은 매번 끓는 물 또는 가정용 소독제로 살균하여 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식중독 예방의 가장 쉬운 방법은 "청결"

개인적으로는 손을 깨끗하게 자주 씻는 예방법을 들 수 있다. 손만 잘 씻어도 식중독 70%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손을 씻을 때는 깍지를 끼어 비벼 씻어 손가락 사이사이를 문질러 행구어 내도록 한다. 손을 잘 씻어야 자기위생 관리가 철저히 되어 병균이 옮지 않는다는 말이다. 식중독 증세가 나타나면 예방과 응급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보이면 탈수를 막기 위해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 줘야 한다. 끓인 물에 설탕과 소금을 적당히 타서 먹이면 된다. 이온음료나 오렌지주스도 괜찮다. 설사가 하루 이틀 지나도 멈추지 않고 고열을 동반한 복통이 오거나 대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 설사약은 자칫 장 속에 있는 세균을 배출하지 못하게 만들어 병을 더 오래 끌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은 바로 "청결"이다.. 음식물을 만지기 전에 항상 손을 씻고, 외출후 집으로 돌아와서도 손부터 닦는 습관을 기르며 식중독으로부터 안심하고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자.

**조합만평**



2008년 주요 활동일지

- ◆ 07.11 임시대의원회 (회계결산, 예산심의, 집행부인준)
- ◆ 08.04 제6대 대의원 보궐선거
- ◆ 09.11 3/4분기 노사협의회
- ◆ 10.13 임시대의원회 (임금협약 심의)
- ◆ 10.23~12.10 08년도 임금교섭
- ◆ 12.17 임시총회 (임금협상 합의건)
- ◆ 12.22 제7대 대의원 당선공고

2009년 주요 활동일지

- ◆ 01.09 임시대의원회 (회계감사등)
- ◆ 02.02 대의원 보궐선거
- ◆ 02.23 운영위원회 개최(일자리나누기 성금모금관련)
- ◆ 03.17 1/4분기 노사협의회
- ◆ 03월~06월 노동조합 교육
- ◆ 04.09~04.10 임시대의원회 및 수련회
- ◆ 07.06 정기총회

주요 활동일지